



그리스의 출애굽 전승과 역사적 배경

김성 | 협성대



1. 들어가는 말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된 유일한 경험이었을까? 이런 질문이 제기되는 이유는 나일 강의 풍부한 수량에 의존하는 대규모 농경 국가였던 이집트는 천수답을 기반으로 주변 여러 민족들에게 자연 재해가 닥칠 경우 이주해 갈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피난처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동시에 식량과 자원이 풍성했던 이집트는 자연 환경이 열악했던 주변 민족들을 끌어들이기에 충분했다. 따라서 삼천년 역사를 통해 수많은 외부 인종 집단들이 이집트로 유입해 들어갔다. 이스라엘 민족도 예외가 아니어서 이미 아브라함 시대부터 이집트는 가뭄과 기근이 닥칠 때마다 찾아가는 피난처 역할을 했고 이 전통은 신약 시대까지 이





어졌다.¹⁾ 이집트로 들어간 외부 민족들은 일부는 원주민들과 섞여 동화되기도 했지만 나머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집트를 떠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갔다. 유사 이래로 수많은 집단들이 필요에 따라 이집트로 들어갔다 다시 나왔을 텐데 우리는 전자를 입애굽(εἰσοδοῦς), 그리고 후자를 출애굽(ἐξοδοῦς)이라 부를 수 있으며 요셉의 입애굽과 모세의 출애굽으로 구체화되었다.

혹시 이스라엘 민족 외에 다른 민족들에게도 기상재해를 피해 이집트로 이주해서 체류하다 탈출했던 출애굽의 경험이 있지 않을까? 만일 그런 사건이 실제로 있었다면 그들은 입-출애굽 전승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했을까? 이스라엘 외에도 이집트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남쪽의 쿠쉬(누비아), 서쪽의 리비아, 그리고 북동쪽의 시나이 반도 및 트랜스요르단 지역의 거주민들도 이집트와 밀접한 연관을 맺었다. 실제로 이집트 서쪽의 리비아 인들은 기원전 950년경 삼각주를 중심으로 제 22왕조를 설립하고 200년 가까이 이집트를 통치했으며, 이어서 남쪽의 쿠쉬(누비아) 인들도 기원전 750년경 제 25왕조 수립을 통해 자신들의 세력권을 전 이집트로 확장시켰다. 물론 리비아 인들이나 쿠쉬 인들이 입애굽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이집트 원주민들에 의해 자신들의 고향으로 추방당한 역사적인 기록, 즉 출애굽의 기록은 없다. 아마도 당시 기원전 1070년경 이후 이집트는 본격적인 쇠퇴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외국 세력을 몰아 낼 능력이 없었으리라 짐작된다.

이스라엘적인 입-출애굽 유형과 비슷한 민족 집단의 사례는 기원전 16세기의 히소스의 입-출애굽일 것이다. 특별히 히소스의 경우 이집트의 기록과 고고학적 발굴 결과를 통해 그들의 입애굽과 이집트 체류, 그

1) 피난처로서의 이집트에 관한 최근의 광범위한 연구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Garrett Galvin, *Egypt as a Place of Refuge*. (Tübingen: Mohr Siebeck, 2011). 아쉽게도 갈빈은 마지막 장(Chapter 6)에서 그리스-로마 시대의 이집트 피난처를 언급하면서, 그리스적 입-출애굽의 원형이 된 이오의 입애굽이나 다나오스의 출애굽 전승은 다루지 않았다.





리고 여러 차례 전투를 동반한 출애굽 과정 등이 종합적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소위 “최초의 역사적 입-출애굽” 사례로 평가된다.²⁾ 그런데 히소스 외에도 입-출애굽 과정이 이집트 역사 속에서 기록된 또 다른 집단이 있다. 비록 이집트와는 육로로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에게 해 출신의 “바다 민족들”은 기원전 13-12세기에 걸쳐 바닷길을 통해 이집트로 진출하려 했고 이집트의 저항에 부딪쳐 동 지중해 여러 지역으로 분산되었다. 바다 민족들 중 블레셋의 경우 이집트로 진출하려다 쫓겨나와 가나안의 서쪽, 지중 해안에 정착하게 되어 로마시대에 팔레스티나 속주의 어원이 되었다.

그렇다면 혹시 바다 민족의 고향으로 알려진 에게 해, 또는 그리스 본토에서 입-출애굽 전승이 형성되고 보존되지 않았을까? 비록 바다 민족과 같은 기원전 13-12세기의 기록된 문서는 아니지만, 기원전 5세기 이후 기록된 그리스 문헌들에는 그리스 남부 펠로폰네소스의 대표적인 고대 도시들 중 하나인 아르고스 출신의 공주 이오가 이집트로 이주했고 그녀의 후손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이오 신화와 다나오스 신화가 등장한다. 비록 그 성격이나 내용 면에서 이스라엘의 것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그리스 민족은 그들의 조상들 중 일부가 이집트로 이주했고(입애굽),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 중 일부가 이집트를 탈출했다(출애굽)는 전승을 기록하고 발전시켰다. 특별히 그리스 문명에 대한 이집트나 페니키아의 영향력을 강조하려는 일부 학자들에 의해 그리스의 출애굽 전승의 역사성과 시대적 배경 논의에 혼란이 초래되었다.³⁾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히소스 추방을 그리스 영

2) 성서적 출애굽과 히소스 추방과의 연관 관계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김성, “첫 번째 역사적 출애굽: 출애굽의 연대추정과 히소스 추방”, 『구약논단』, 제1집(1995), 27-55.

3) 모든 논쟁은 마틴 버널의 문제의 삼부작 『블랙 아테나 I, II, III』(1987-2006)로부터 시작되었다. Martin Bernal, *Black Athena: The Afroasiatic Roots of Classical Civilization. Vol. I: The Fabrication of Ancient Greece 1785-1985*, (New Brunswick: Rutgers University Press, 1987); *Vol. II: The Archaeological and Documentary Evidence*, (New Brunswick: Rutgers University Press, 1991); *Vol. III: The Linguistic Evidence*, (New Brunswick: Rutgers University Press, 2006); 우리말 번역: 마틴 버널/ 오홍식 옮김, 『블랙 아테나: 서양고전 문명의 아프리카·아



웅 신화와 일치시키려는 시도 때문에 기존의 연표와 사건들에 대한 해석이 왜곡되는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기존의 그리스적 입-출애굽 전승들을 재구성한 다음 그 역사적 배경을 분석하고 평가하고자 한다.

2. 그리스의 입-출애굽 전승

그리스적의 입-출애굽 전승이란 그리스 출신의 특정 인물이나 집단이 고향을 떠나 이집트에 체류 한 후 이집트를 탈출하여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야기이다. 그리스의 수많은 신화 중에서 이러한 성격에 부합되는 대표적인 이야기는 아르고스 출신의 공주 이오(Io)가 고향으로부터 추방되어 여러 나라를 방황하다 최종적으로 이집트에 정착한 이오 신화이다. 이오는 이집트에 체류하며 자손을 낳았고 그녀의 후손들인 아게노르와 다나오스가 차례대로 이집트를 떠나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그리스인들의 출애굽 모티프가 탄생되었다. 이오 신화 및 다나오스 신화로 알려진 이 이야기들 중 현존하는 최초의 기록은 기원전 5세기의 작품들인 헤로도토스의 『역사』 제 2권과 아이스킬로스의 두 가지 희곡 『탄원하는 여인들』과 『결박당한 프로메테우스』이다. 비록 비슷한 시기에 기록되었다 하더라도 헤로도토스의 것이 좀 더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을 중시하고 나름대로 자신의 사관을 반영하여 해석한 반면, 아이스킬로스의 경우 아테네의 디오니소스 극장의 무대에 올리기 위한 희곡으로 각색되는 과정

시아적 뿌리 제 1권 날조된 고대 그리스 1785-1985(서울: 소나무, 2006); 『블랙 아테나 제 2권: 고고학 및 문헌 증거』(서울: 소나무, 2012); 버널의 주장에 대한 비판적 견해: Mary R. Lefkowitz and Guy MacLean Rogers eds., *Black Athena Revisited*, (Chapel Hill: North Carolina University Press, 1996); 비판에 대한 버널의 반박: Martin Bernal, *Black Athena Writes Back: Martin Bernal Responses to His Critics*,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01); 버널 저작의 우리말 번역자의 논쟁 소개: 오홍식, "아르고스 왕 다나오스와 그 후손들," 『서양고대사연구』 12(2003), 23-39; "테베 왕 카드모스와 그 후손들," 『역사와 경계』 53(2004), 77-103; "카드모스와 알파벳의 전래," 『서양사론』 83(2004), 33-55; "스파르타 왕가의 희소스적 기원," 『서양고대사연구』 16(2005), 45-68.

에서 극적인 효과를 위해 작가의 문학적 상상력이 많이 첨가되었다. 입-출애굽과 연관된 이오 및 다나오스 신화는 기원전 1세기에 들어와서 대표적인 그리스 신화 모음집인 아폴로도로루스의 『비블리오테카』와 오비디우스의 『변신』, 로마 제정기 초기의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아스』에서 좀더 각색된 성격으로 등장한다. 이상의 자료들을 바탕으로 그리스적 입-출애굽 이야기는 다음과 같이 재구성 될 수 있다.

1) 입애굽: 이오 신화

헤로도토스는 그의 『역사』 첫머리에 그리스의 이오가 이집트로 이주하게 된 과정을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그리스인들에 의하면, 아르고스(Argos)의 공주인 이오가 그곳에 도착한 페니키아 무역상들에 의해 납치되어 이집트로 끌려가게 되었다는 것이다.⁴⁾ 하지만 페니키아인들에 의하면, 이오가 페니키아 선장과 눈이 맞아 임신한 상태에서 부모의 분노를 피해 이집트로 도주했다고 한다.⁵⁾ 헤로도토스가 그의 역사 서술을 한 여인의 이주 사건으로 시작한 것은 좁게는 그리스 민족과 페르시아 민족, 넓게는 그리스 민족과 기타 민족들 사이의 갈등과 대결을 여인들의 상호 납치 사건들로 해석하여 분쟁의 실마리를 언급하려는 배경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이오의 납치 다음으로는 그리스와 이해관계가 있었던 주변 민족들에 대한 일종의 보복 행위로서 두로의 공주 유로파(Europa)의 납치, 콜키스의 공주 메데아(Medea)의 납치로 이어진다. 같은 맥락에서 소아시아인들의 그리스인들에 대한 반감은 트로이 전쟁의 원인이기도 한 스파르타의 왕비 헬렌(Helen)의 납치로 표현되었다.⁶⁾ 이오의 입애굽의 원인이 납치이건 자발적인 도주이건 간에 중요한 것은 이집트가 그리스 민족의 신화-지리적 고향이라는 관점을 나타낸다는 점이다.

4) 헤로도토스, 『역사』 1.1. 다음부터는 헤로도토스로만 표기.

5) 윗글. 15.

6) 윗글. 12-3.



이오의 납치 사건은 후대의 신화작가들에 의해 좀 더 많은 지역과 민족들이 결합된 복잡한 양상으로 발전되었다. 아폴로도로루스의 『비블리오테카』에 의하면 이오는 이나코스의 딸로서 아르고스에 위치한 헤라 신전의 여사제였다. 제우스가 이오를 유혹하자 화가 난 헤라 여신은 이오를 암소로 변신시켰다. 헤라는 이에 그치지 않고 쇠파리 떼를 보내 이오로 하여금 온 세상으로 떠돌아다니게 만들었다. 혹시 예레미야(46:20)가 이집트를 “북으로부터의 쇠파리에 쫓기는 암송아지”로 비유한 것이 이오의 암소 변신과 연관이 있을까?⁷⁾ 이오는 그리스의 전형적인 영웅들의 과제 중 하나인 이국땅에서의 모험 대신 여러 지역을 떠돌아다니는 방랑 과정을 겪게 된다. 암소로 변신한 이오는 고향으로부터 추방된 후 이오니아 만, 일리리아, 트라키아 해협과 보스포루스 해협을 건너 소아시아의 스키타이 및 키메리아 땅, 그리고 시리아, 페니키아를 거쳐 이집트에 도착했다.⁸⁾ 이오니아(Ionia) 지역과 암소가 건넜다는 보스포루스(Bosporos) 해협의 어원은 모두가 이오의 추방 사건에서 비롯되었다.

이스라엘 민족의 경우 입애굽 사건의 배경은 자연 재해로 인한 가뭄과 기근인데 비해 그리스의 경우 재앙을 피해 그곳으로 피난 간 사례는 매우 드물다. 이오가 이집트로 이주한 것은 어떤 면에서는 헤라 여신의 추적을 피해 피난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아폴로도로루스), 다른 자료에 의하면 페니키아 인들과 함께 그들의 무역 대상국이었던 이집트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난다(헤로도토스). 만일 후자를 중시한다면 이오 전승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역사적 배경은 가장 멀리 거슬러 올라가서 기원전 10세기 경 그리스 본토 민들이 시리아 및 페니키아 해안 지역에 이주하여

7) “이집트는 아름다운 암송아지 같으나 북으로부터의 쇠파리가 덤벼들리라.” 쇠파리로 번역된 히브리어 “케레츠”는 구약성서에 단 한번만 등장하는 단어여서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다. 예레미야 예언의 맥락이 바빌로니아 느부갓네살 군대의 이집트 침략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쇠파리는 “열망”이나 “파멸”로 번역되기도 한다.

8) 아폴로도로루스, 『비블리오테카』 11.3. 다음부터는 아폴로도로루스만 표기.



정착하기 시작한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⁹⁾ 오비디우스는 그의 신화 모음집 『변신』에서 이오의 방황이나 이집트 이주보다는 주로 유피테르(제우스)에 의한 이오의 암소 변신과 이를 둘러싼 유노(헤라)의 질투와 보복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었다. 물론 암소로 변신한 이오가 궁극적으로 나일 강변에서 휴식을 취했다는 표현을 통해 그녀의 입애굽을 시사했고, 들 사이에서 낳은 아들 에파포스도 언급했지만 아폴로도로스 만큼 이오 이야기의 구체적인 사건의 전개는 나타나지 않는다.¹⁰⁾ 이오는 아르카디아인들의 어머니 칼리스토(Callisto), 미시아인들의 어머니 아우게(Auge) 등과 함께 그리스의 특정 지역 및 여러 도시들의 설립자의 어머니로서, 추방당했다가 신들의 배려로 아들을 낳아 명예를 회복하는 일종의 희생양 모델로 해석되기도 한다.¹¹⁾ 이오가 다른 설립자 여성들과 다른 점은 가장 먼 지역까지 방황하고 이주했다는 사실이다. 비록 에포님적 해설에 불과하지만 이오는 자신의 자손들을 통해 이집트, 리비아, 페니키아 지역의 어머니 조상으로 등극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암소 변신의 성격을 지닌 이오는 이집트인들에 의해 이시스 여신으로, 그리고 그녀의 아들 에파포스는 아피스 황소 신과 동일시되었다.¹²⁾

2) 이집트 체류

페니키아인들의 납치, 또는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이오가 이집트로 이주했다는 기록을 남긴 헤로도토스는 그녀의 후손들의 출애굽에 관해서는 의외로 침묵하고 있다. 헤로도토스 기록에서는 다나오스의 출애굽 과정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고 페르세우스의 조상으로만 나타난

9) Robin Lane Fox, *Travelling Heroes: Greeks and Their Myths in the Epic Age of Homer*, (London: Allen Lane, 2008), 210-214.

10) 오비디우스, 『변신』 1568-750.

11) Eric Csapo, *Theories of Mythology*, (Oxford: Blackwell, 2005), 199-201; Jan N. Bremmer, *Greek Religion and Culture, the Bible and the Ancient Near East*, (Leiden: Brill, 2008), 31.

12) 윗글.

다.¹³⁾ 헤로도토스는 이오의 후손들의 이집트 체류에 관한 언급보다는 그가 이집트를 방문했을 당시 겪었던 여러 도시들에서 발견되는 그리스적 흔적들에 관해 기록했을 뿐이다. 그렇다면 아게노르와 다나오스의 출애굽 모티프는 헤로도토스가 활동했던 페르시아 시대보다는 이집트가 그리스적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헬레니즘 시대의 산물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왜냐하면 이오의 후손들의 이집트 체류는 아폴로도로스와 오비디우스 등 주로 헬레니즘 시대와 로마 시대에 편집된 신화 모음집에 언급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오가 이집트에 정착하여 후손들을 배출하는 과정은 아폴로도로스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정리됐다. 제우스는 이오를 다시 사람으로 환생시킨 후 그녀를 “만짐으로써(επαπτειν)” 임신시켰다. 따라서 그녀가 낳은 아들의 이름은 에파포스(Epaphos)이다. 에파포스는 이집트의 왕으로 통치하면서 나일의 딸 멤피스와 결혼하고 그녀의 이름을 딴 도시를 건설했다. 그는 멤피스와의 사이에서 딸 리비아를 낳았다. 리비아는 포세이돈과의 사이에서 아게노르(Agenor)와 벨로스(Belos) 쌍둥이 아들을 낳았다.¹⁴⁾

3) 출애굽: 아게노르와 다나오스 신화

이오 후손들의 출애굽은 아게노르와 다나오스 등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아게노르는 이집트를 떠나 페니키아에 정착했는데 그의 출애굽 배경은 구체적으로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쌍둥이 형제 벨로스와의 갈등인 것으로 추정할 뿐이다.¹⁵⁾ 페니키아에 정착한 아게노르는 이오의 4대 손자로서 텔레파사와의 사이에서 유로파, 카드모스, 페닉스, 킬릭스 등을 낳았다. 페닉스와 킬릭스는 각각 페니키아와 킬리키아

13) 헤로도토스, Ⅱ9.

14) 아폴로도로스, Ⅱ.1.4.

15) 원문. 그리스의 출애굽 전승에는 고대 이스라엘처럼 10 재앙이나 홍해 사건처럼 구체적인 위기를 겪은 내용은 등장하지 않는다. 출애굽의 열 재앙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장석정, “일곱째 재앙 경고(출 9:13-21) 재고”, 『구약논단』, 40집(2011년 6월), 33-58.



의 에포넴적 시조가 되었다. 한편 아게노르와 쌍둥이 형제인 벨로스는 나일의 딸 안키노에와 결혼하여 쌍둥이 아들 에킵토스와 다나오스를 낳았다. 벨로스는 자신의 두 아들 중 에킵토스를 아라비아에 정착시키고, 다나오스는 리비아를 다스리도록 했다. 한편 가장 이른 자료인 헤로도토스에 의하면 다나오스는 이집트의 테베 근처의 케미스 출신이었고, 단순히 “배를 타고 그리스로 건너갔다”고 언급되었다.¹⁶⁾ 에킵토스로부터 50명의 아들들이, 그리고 다나오스로부터는 50명이 딸들이 태어났다. 두 가문의 자녀들이 이집트의 통치권을 놓고 대립하기 시작했다. 다나오스는 아테나 여신의 충고에 따라 선박을 준비하고 딸들과 함께 이집트를 탈출한다.

그런데 많은 아내들을 통해 이집트에게는 50명의 아들들이 태어났고, 다나오스에게는 50명의 딸들이 태어났다. 나중에 그들이 통치권을 두고 대립하게 되자, 다나오스는 이집트의 아들들을 두려워하여, 아테나 여신의 권고에 따라 선박을 만들어 자신이 먼저 타고 딸들도 태워 이집트를 떠났다.¹⁷⁾

바로 이 대목에서 다나오스의 출애굽 모티프가 탄생되었다. 다나오스는 자신의 쌍둥이 동생 이집트와의 통치권 다툼에서 밀려나 이집트를 떠났다는 것이다. 다나오스는 먼저 로도스 섬에 도착해서 린도스 도시에 아테나 여신의 신전을 세웠다.¹⁸⁾ 다나오스는 딸들과 함께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아르고스 도시에 도착하여 왕으로서 통치하였다. 이로써 이오가 이집트로 이주한지 5세대 만에 다나오스가 출애굽하여 선조들의 고향인

16) 헤로도토스, 191.

17) 아풀로도루스, 114.

18) “그러나 그(아미시스)가 린도스에 선물을 보낸 것은 우호 관계 때문이 아니라, 린도스에 있는 아테나 신전이 에킵토스의 아들들을 피해 도망하다가 그곳에 상륙한 다나오스의 딸들에 의해 건립되었다는 전승이 있기 때문이다.” 헤로도토스, 1182.





아르고스의 왕이 됨으로써 이 도시 출신들의 입-출애굽 이야기는 일단락을 맺는다.

제 1세대: 제우스-이오

제 2세대: 에파포스-멤피스

제 3세대: 포세이돈-리비아

제 4세대: 아게노르- 텔레파사 / 벨로스-안키노에

제 5세대: 유로파, 카드모스, 페닉스, 킬릭스 / 이집트, 다나오스

한편 기원전 5세기에 활동했던 아이스킬로스는 다나오스와 연관된 삼부작을 통해 아르고스 통치권 쟁탈을 둘러싼 다나오스와 그의 딸들의 역할을 강조했다.¹⁹⁾ 다나오스 신화는 기원전 460년경 기록된 아이스킬로스의 『다나오스 삼부작』에 등장하기 때문에 이미 헬레니즘 시대 이전에 어떤 형태로든지 아르고스의 조상들이 이집트 출신이라는 전승이 보존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렇다면 아이스킬로스는 헤로도토스와 함께 그리스적 출애굽 전승의 첫 세대 기록자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런데 아이스킬로스의 주된 관심은 주인공들(다나오스의 딸들)의 탄원과 아르고스 인들의 반응 등 당시 정치-사회적 상황이지 조상들의 입애굽과 출애굽은 아니다.²⁰⁾ 실제로 아이스킬로스는 기원전 490년의 마라톤 전투와 기원전 480년의 살라미스 해전에 직접 참전한 관계로 그리스의 대내외적 정치-사회 현실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로도토스와

19) 아이스킬로스의 다나오스 삼부작은 각각 『탄원하는 여인들(The Suppliant Maidens)』, 『이집트인들(The Egyptians)』, 그리고 『다나오스의 딸들(The Danaids)』로서 다나오스의 출애굽 이야기로 시작하여 다나오스의 딸과 사위가 아르고스의 왕권을 차지하는 이야기로 막을 내린다. 세 작품 중 『탄원하는 여인들』만 오늘날 남아서 전해진다. 천병희 옮김, 『아이스킬로스 비극 전집』, 도서출판 숲, 2008: 293-342.

20) Hedwig Spier, "The Motive for the Suppliant's Flight," *Classical Journal* 57(1962), 315-317; J.K. MacKinnon, "The Reason for the Danaids' Flight," *Classical Quarterly* 28(1978), 74-81; Chad Turner, "Perverved Supplication and Other Inversions in Aeschylus' Danaid Trilogy," *Classical Journal* 97(2001), 27-50.



달리 아이스킬로스는 이미 기원전 5세기에 다나오스의 딸들과 이집트의 아들들 사이의 비극적인 혼인 사건을 연극 각본으로 구성했다는 점에서 당시 실존했던 다나오스 출애굽 전승을 참고했으리라 짐작된다.

3. 그리스적 입-출애굽 전승의 역사적 배경

이오의 입애굽과 아게노르 및 다나오스의 출애굽으로 구성된 그리스적 입-출애굽 전승의 역사적 배경을 재구성할 수 있는가? 우선 이오 및 다나오스 신화는 알파벳 그리스어의 최초의 기록으로 알려진 기원전 8세기의 호메로스나 헤시오드의 작품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신화의 가장 이른 역사적 배경은, 헤로도토스와 아이스킬로스 기준으로 본다면, 기원전 5세기이다. 그렇다면 적어도 그리스 고전기인 기원전 5세기에는 입애굽과 연관된 이오 신화가 널리 퍼져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아이스킬로스의 희곡에 나타난 다나오스의 출애굽 및 고향으로의 귀환 모티프를 통해 당시 이 이야기는 이미 기원전 5세기의 아테네 사회에서 매우 익숙한 내용으로 잘 알려졌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기원전 2000년 이후 미노아 및 미케네 시대에 성행했던 이집트와의 국제 무역이 기원전 1200년경 단절된 후 기원전 7세기 후반 무역 도시 나우크라티스(Naukratis)의 설립을 계기로 그리스 시계에 이집트가 새로운 문명으로 소개되기 시작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그리스적 입-출애굽 전승의 최초의 기록 시대(기원전 5세기)에서 가까울수록 그 전승의 역사성이 더 높다는 전제 하에 역사적 배경은 다음의 세 가지 가능성으로 압축된다.

1) 첫 번째 가능성: 나우크라티스 설립(기원전 7세기)

기원전 1200년 이후 이집트에서는 그리스인들의 물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둘 사이의 무역 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때부터 그리스 세계에서는 기원전 7세기까지 기록물이 거의 나타나지 소위 암흑기가 500년 가까이 지속되었다. 기원전 630년경 그리스인들의 무역항인 나우크라티스가 이집트 땅에 설립되면서부터 단순한 물질문화의 교류를 넘어서 이집트의 오랜 문화적 전통을 그리스가 이어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²¹⁾ 나일 강 삼각주 중에서도 카노포스 지류 변에 위치한 나우크라티스는 지중해 연안에서 내륙으로 80km 가까이 들어간 곳으로서 해상 무역뿐만 아니라 강을 거슬러 올라 이집트 내륙의 하상 무역에 까지 참여할 수 있는 입지적 조건을 가졌다. 또한 나우크라티스는 당시 이집트의 새로운 왕조의 수도인 사이스(Sais)와는 직선거리 15km 정도 떨어져 있어서 왕실 주도의 국제 무역에 효율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었다. 기존의 누비아 출신의 제 25왕조를 무너뜨린 제 26왕조의 프삼티코스(기원전 664-610)는 이집트를 위협했던 아시리아 제국에 효율적으로 대항하기 위해 소아시아의 이오니아 및 카리아 지역의 그리스계 용병들을 고용하기 시작하면서 그리스와의 국제 교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²²⁾ 적어도 헤로도토스에 의하면 이들이 이집트에 정착한 최초의 그리스인들이라는 것이다.²³⁾ 그리스로서는 풍부한 이집트의 밀이 가장 중요한 수입품이었으며, 그리스 산 올리브유와 포도주들이 대량으로 이집트로 유입되었다.²⁴⁾ 이집트의 프삼티코스는 고대 그리스 역사가들에 의해 친 그리스적인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²⁵⁾ 제 26왕조 초기에 실제로 이집트는 그들의 전성기였던 신 왕국 시대 이후 처음으로 가나안 남부 지역을 식민지로 편입시킬 정도의

21) 기원전 7세기 이후 그리스인들의 이집트 이주 및 정착에 관해서는 다음 연구들을 참조하십시오. John Boardman, *The Greeks Overseas: Their Early Colonies and Trade* (London: Thames and Hudson, 1980), 111-141; T.F. Braun, "The Greeks in Egypt", *Cambridge Ancient History* III/3(1982), 32-56; Astrid M. Iler, *Naukratis: Trade in Archaic Gree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22) J.D. Ray, "The Carian Inscriptions from Egypt", *Journal of Egyptian Archaeology* 68(1982), 181-198.

23) 헤로도토스, II,154.

24) Carl Roebuck, "The Grain Trade Between Greece and Egypt", *Classical Philology* 45(1950), 236-247.

25) 디오도루스 시콜루스 167.9.



막강한 제국주의적 영향력을 행사했다.²⁶⁾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지 이 시기부터 이집트 문화가 그리스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을 것이다.

2) 두 번째 가능성: 바다 민족과 블레셋(기원전 13-12세기)

이오의 유랑과 이집트 이주는 기원전 1200년을 전후하여 발생했던 바다 민족의 이집트 진출 시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바다 민족이란 기원전 13세기 이집트로 침공해 들어갔던 에게 해 출신 여러 민족들의 포괄적인 명칭으로서 지중해 연안의 청동기 시대 종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²⁷⁾ 이집트로 진출했던 바다 민족에 관한 자료는 기원전 14세기 아멘호텝 3세와 4세 시대에 기록된 아마르나 서신, 기원전 13세기 람세스 2세의 카데쉬 전투 기록, 메르네프타의 승전비, 기원전 12세기 람세스 3세의 장례신전 기록 및 부조, 헤리스(Harris) 파피루스 등 비교적 다양한 편이다.²⁸⁾ 람세스 2세 시대까지 바다 민족은 파라오에 의해 용병으로 고용될 정도로 적어도 그들은 이집트에 대해 특별히 호전적인 적대 세력은 아니었다. 하지만 기원전 1200년경 그들의 고향인 에게 해 연안에서 가뭄으로 인한 기근, 지진 등 일련의 천재지변으로 인한 대규모 이주가 시작되면서 동 지중해의 해적으로 바뀌었다.²⁹⁾ 메르네프타 통치 제 5

26) Bernd U. Schipper, "Egyptian Imperialism after the New Kingdom: The 26th Dynasty and the Southern Levant," in Shay Bar et. al. eds., *Egypt, Canaan and Israel: History, Imperialism, Ideology and Literature*, (Leiden: Brill, 2011), 268-290.

27) 바다 민족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 N.K. Sandars, *The Sea Peoples: Warriors of the Ancient Mediterranean*, (London: Thames & Hudson, 1985); Trude Dothan & Moshe Dothan, *People of the Sea: The Search for the Philistines*, (New York: Macmillan, 1992); Elezer D. Oren ed., *The Sea Peoples and Their World: A Reassessment*, (Philadelphia: University Museum, 2000).

28) 바다 민족들에 관한 이집트 자료에 관한 종합적인 분석: David O'Connor, "The Sea Peoples and the Egyptian Sources," Elezer D. Oren ed., *The Sea Peoples and Their World: A Reassessment*, (Philadelphia: University Museum, 2000), 85-102.

29) 기원전 1200년 이후 소위 "암흑기"의 배경: Peter James, *Centuries of Darkness*, (London: Jonathan Cape, 1991); William Ward & Martha Joukowsky eds., *The Crisis Years: The 12th Century B.C.: From Beyond the Danube to the Tigris*, (Dubuque: Kendall/Hunt, 1992); Robert Drews, *The End of the Bronze Age: Changes in Warfare and the Catastrophe ca.1200 B.C.*,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



년인 기원전 1210년 경 바다 민족들은 리비아와 동맹을 맺고 본격적으로 이집트를 위협했다. 당시 리비아는 67년을 통치했던 람세스 2세 시대의 전성기가 끝난 상태에서 접경 지역의 관리가 소홀해진 틈을 타서 강대국의 속박에서 벗어나려는 독립 운동과 함께 마침 리비아에 닥친 대규모 기근을 극복하기 위해 곡창 지대인 이집트 삼각주 지역으로 진출하고자 했다. 이러한 리비아의 이집트 침공에 바다 민족들 중 샤르덴(Sharden), 셰클레쉬(Sheklesh), 아카와샤(Akawasha), 뤼카(Lukka), 투르샤(Tursha)의 다섯 집단들이 동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람세스 3세 제 5년에 서쪽의 리비아 민족이 메쉬웨쉬, 세페드 민족과 연합하여 나일 삼각주 지역으로 진출했지만 이집트 군대가 이를 격퇴시켰다. 하지만 제 8년에는 서쪽의 리비아 뿐만 아니라 북쪽의 시리아-팔레스타인 지역도 이집트에 반기를 들었다. 람세스 3세 사후에 기록된 해리스(Harris) 파피루스에도 메르네프타 시대의 다섯 민족과 대비될 수 있는 바다 민족의 또 다른 집단들 - 다니엔(Danyen), 체케르(Tjeker), 블레셋(Pershet), 샤르덴(Sharden), 웨쉬쉬(Weshesh) -의 침입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³⁰⁾ 메르네프타 시대의 바다 민족들이 주로 리비아와 함께 이집트를 공략하려 했다면 람세스 3세 시대에는 바다를 통해 들어오기도 했지만 일부는 시리아 쪽에서부터 육로로 내려 온 집단들이었다. 아마도 이들은 막강했던 히타이트 제국을 붕괴시킨 장본인일 수도 있다.³¹⁾ 또한 이들은 시리아의 우가릿(Ugarit)과 알랄라크(Alalakh)왕국 등의 붕괴와도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가릿에서 발견된 한 토판문서에는 히타이트가 기근에 처한 지역에 곡물을 제공하기 위해 배 한척과 선원들을 요구했고 키프로스도 비슷한 이유로 선박을 요구했지만 우가

30) John A. Wilson tr., "The War Against the Peoples of the Sea," James B. Pritchard ed., *Ancient Near Eastern Texts Relating to the Old Testamen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9), 262-263.

31) Trevor Bryce, *The Kingdom of the Hittit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367-374; Itamar Singer, "New Evidence on the End of the Hittite Empire," Eleazer D. Oren ed., *The Sea Peoples and Their World: A Reassessment* (Philadelphia: University Museum, 2000), 21-33.

릿은 이들의 요청을 들어줄 수가 없었다. 왜냐면 우가릿의 선박들은 바다 쪽에서부터 침략해 들어오는 바다 민족을 막아내기 위해 모두 동원되었기 때문이다.³²⁾

우리가 바다 민족들 중 블레셋을 중시하는 이유는 일단 입애굽해서 랍세스 3세의 군대와 전투를 벌인 후 자의반 타의반으로 출애굽하여 가나안의 서쪽 해안 지역에 정착해서 막강한 도시국가들을 형성했기 때문이다.³³⁾ 또한 블레셋 “다섯 도시 동맹”을 이루는 역사적 과정과 발굴을 통한 그들의 물질문화가 비교적 구체적으로 확인되었다.³⁴⁾ 랍세스 3세 당시 이집트는 자신의 영토에 침입한 블레셋과 전투를 벌였고 테베의 메디나트 하부에 있는 그의 장례신전 벽에 새겨져 있는 부조를 통하여 당시의 해전과 육전의 상황들을 비교적 생생하게 알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블레셋 민족은 머리에 깃털로 장식된 투구를 썼고 짧은 치마를 걸쳤으며 샤르덴 민족은 뿔 장식의 투구를 착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집트 군대는 ‘자히(Djahi)’라 불리는 가나안 해안 지역에서 블레셋과 싸웠고 블레셋은 가자(Gaza), 아쉬켈론(Ashkelon), 아쉬도드(Ashdod) 등에 정착했다.

3) 세 번째 가능성: 힉소스 추방(기원전 16세기)

이집트 역사 기록을 통해 확인된 기원전 1550년경의 힉소스 추방 사건은 출애굽 전승의 대표적인 역사적 실마리가 된다. 이런 점에서 아케노르와 다나오스의 그리스적 출애굽 전승의 역사성을 입증하려는 학자

32) A. Curtis, *Ugarit: Ras Shamra* (Grand Rapids: Eerdmans, 1985), 47-48.

33) 창세기 10장의 “민족들의 계보”에서 블레셋은 원래 그리스 계통이어서 아벳의 자손으로 분류되어야 하지 만 함의 아들인 이집트의 아들로 등장한다. 창세기 10장의 기록자들은 적어도 블레셋이 이집트 출신이라는 역사적 기억은 참고했지만 그들이 원래에게 해 출신의 바다 민족들 중 하나였다는 사실은 몰랐던 것 같다.

34) Trude Dothan, *The Philistines and Their Material Culture*, (Jerusalem: Israel Exploration Society, 1982).

들은 이를 히소스 추방과 직접 연관시키려 했다.³⁵⁾ 그리스 신화학자들은 이집트에 정착했던 이오와 제우스 사이에서 난 아들, 에파포스 어원을 그리스어 동사 “에파테인(epaptein)”으로 제시하며 제우스가 살짝 만짐으로 이오를 임신시켰다고 주장했지만, 히소스적 배경을 강조하는 학자들은 에파포스는 제 15왕조의 히소스 왕 아포피스를 연상시킨다고 주장한다.³⁶⁾ 다른 한편 에파포스는 이집트의 전통적인 황소 신 아피스(Apis)와 동일시되기도 한다.³⁷⁾ 과연 히소스가 인종적으로 그리스 민족과 연결될 수 있는 근거가 있는가? 지난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히소스의 고유한 물질문화가 아직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후리족, 아모리 족이나 심지어 히타이트 족까지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했다.³⁸⁾ 언어학적인 차원에서 후리적인 요소가 발견된다는 것과 중기청동기 II시대의 독특한 축성방식이나 말을 이용한 전차의 개발, 새로운 형태의 청동제 무기 등을 히소스와 연관시켰다. 그렇다면 히소스는 같은 인도-유럽어족인 그리스 민족과 쉽게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지난 1968년부터 시작된 히소스 왕국의 수도인 아바리스(텔 엘-다바)에 대한 발굴이 진행되면서 히소스의 건축, 토기, 무덤 양식 등 구체적인 물질문화가 밝혀졌다.³⁹⁾ 그 결과 히소스는 가나안 민족과 유사하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적어도 인종학적으로 히소스를 그리스와 직접 연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사라졌다.⁴⁰⁾

- 35) Jean B. P. Barré, “Les Hyksos et la L. gende d’io: Recherches sur la P. riode Pr. myc. niene,” *Syria* 29 (1952), 1-43; Michael Astour, “The Hyksos Background of the Danaan Myth Cycle”, *Idem, Hellenosemitica: An Ethnic and Cultural Study in West Semitic Impact on Mycenaean Greece* (Leiden: E.J. Brill, 1965), 92-103.
- 36) Jean B. P. Barré, “Les Hyksos et la L. gend d’io,” 35-37; Michael Astour, *Hellenosemitica*, 94.
- 37) 헤로도토스, II,38; II,27-29; 같은 맥락에서 일부 학자들에 의해 “다나오스”와 “단” 지파의 연관성이 제기되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유사 발음에 의한 상상의 결과일 뿐이다. John P. Brown, *Ancient Israel and Ancient Greece: Religion, Politics, and Culture*,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3), 124.
- 38) 1960년대까지의 히소스에 관한 연구사와 평가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John Van Seters, *The Hyksos: A New Investigati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66), 1-2.
- 39) Manfred Bietak, *Avaris: The Capital of the Hyksos: Recent Excavations at Tell el-Daba* (London: British Museum, 1996).
- 40) 1960년대와 1970년대의 히소스 정체성에 관한 상반된 견해의 한 예를 성서학계의 대표적인 영어권 백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 이전의 옛 가설들을 근거로 그리스의 아게노르와 다나오스의 출애굽 이야기를 히소스적 배경으로 해석하여 그 역사성을 입증하려는 시도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마틴 버넬은 다나오스 신화의 이집트적 배경을 강조하면서 그 시대적 배경을 히소스 추방 사건과 직접 연관시키고자 했다.⁴¹⁾ 이런 맥락에서 마이클 애스터는 이집트와 연관된 다나오스 신화의 귀향 모티프는 가나안의 자료로부터, 즉 히소스 집단의 입-출애굽 이야기에서 빌려 왔다고 주장했다.⁴²⁾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아르고스 사람들이 그들의 유배지를 가장 먼 이집트로 설정했을까? 애스터는 고향으로부터 멀리 떨어질수록 고향의 정권의 재탈환의 정당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한다.⁴³⁾

히소스 왕국의 수도였던 이집트의 아바리스 발굴을 통해 그들이 가나안적 물질 문화를 지녔다는 것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히소스-그리스 연관성이 시도되는 이유는 “파로스 연대기”의 절대 연대를 숫자 그대로 신봉하려는 속성 때문이다.⁴⁴⁾ 파로스 연대기의 제

사전인 *“Interpreter’s Dictionary of the Bible(DB)”*에서 잘 찾아 볼 수 있다. 1962년 판의 “Hyksos” 항목의 집필자 램딘(Thomas O. Lambdin)은 히소스의 후리 족, 또는 인도-유럽어족 연관성을 다음과 같이 시사했다. “... the Hyksos migration is viewed in the light of the general ethnic movements during the first half of the second millennium B.C. in which Hurrian and Indo-European peoples gained domination over much of the Near East.” (*DB II*, 1962: 667) 하지만, 1976년에 출간된 보충판의 해당 항목 집필자인 반 시터즈(John Van Seters)는 다음과 같이 램딘의 견해를 전면적으로 부인했다. “There is no evidence either for a mass invasion by Indo-Aryans and Hurrians or for a military elite using horses and chariots to conquer Egypt.” (*DB Supp.* 1976: 425)

41) Martin Bernal, *Black Athena Vol. II*, 320–360; 『블랙 아테나』 제 2권, 463–517.

42) “The return home in the Danaan myth cycle is entirely borrowed – together with the whole of the cycle – from a Canaanite source: in the sagas of the power and fall of the Hyksos the element of the return home must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but the homeland – it goes without saying – was Syria-Palestine.” Michael Astour, *Hellenosemitica: An Ethnic and Cultural Study in West Semitic Impact on Mycenaean Greece* (Leiden: E.J. Brill, 1965), 97.

43) 윗글.

44) 지난 17세기 초 에게 해의 파로스(Paros) 섬에서 처음 발견되어, 지금은 옥스퍼드 대학의 아쉬몰리언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파로스 연대기에는 그리스의 대표적인 신화적, 또는 역사적 사건들이 기원전 1580년 대부터 기원전 264/3년까지 모두 107가지 사건들의 연대가 정리되어 있다. 헬렌의 납치를 기원전 1218/7년으로(제 23문장), 그리고 트로이 함락을 기원전 1209/8년으로(제 24문장) 기록했기 때문에 역사성을 인정하려는 경향도 있다. 파로스 연대기의 본문 스케치와 영어 번역: www.ashmolean.org/ash/faq/q004/



7문장에는 이오의 5대 손이자 아게노르의 아들인 카드모스가 페니키아를 출발하여 테베에 도착한 연대가 다음과 같이 기원전 1519/8년으로 나타난다.⁴⁵⁾

아게노르의 아들 카드모스가 테베에 와서 카드메이아를 건설한 때로부터 1255년(기원전 1519/8)이 지났다. 당시 암픽티오노스가 아테네의 왕이었다.⁴⁶⁾

카드모스에 관한 가장 오래된 그리스 전승은 헤로도토스에 의한 것으로서 그의 저서 『역사』에서 페니키아의 두로 출신으로 등장한다.⁴⁷⁾ 그리스 기록들은 대부분 카드모스가 페니키아의 두로 왕 아게노르의 아들임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파로스 연대기에는 이오의 5대 손이자 벨로스의 아들인 다나오스가 이집트를 출발하여 로도스 섬을 거쳐 아르고스에 도착한 연대가 다음과 같이 기원전 1511/10년으로 언급되었다.

오십 노선(Penteconter)이라 불리는 [다나오스가 첫 번째 마련한 오십개의 노가 달린] 선박이 이집트를 출항하여 그리스에 도착한 때로부터, 그리고 추첨에 의해 선택된 다나오스의 딸들 - 헬리케와 아르케디케 - 이 로도스 섬의 린도스에 [린도스 아테나 신전을 세우고] 제사를 지낸 때로부터 1247년(기원전 1511/0)이 지났다. 당시 에렉토니오스가 아테네의 왕이었다.⁴⁸⁾

α004001.html

45) 파로스 연대기의 표준 판본: Felix Jacoby, *Das Marmor Parium* (Berlin: Weidmannsche Buchhandlung, 1904).

46) 파로스 연대기 제 7문장. Gillian Newing tr., *The Parian Marble: Translation*, (Ashmolean Museum Internet Version) 참조.

47) 헤로도토스, II.49.

48) 파로스 연대기 제 9문장.

일부 학자들은 파로스 연대기를 통해 다나오스와 카드모스의 절대 연대를 획득했지만 이를 뒷받침 해 줄 수 있는 이집트나 페니키아의 기록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원전 1520-10년에 가장 가까운 히소스 추방을 주목하기 시작했다.⁴⁹⁾ 문제는 기원전 3세기에 기록된 파로스 연대기의 절대 연대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하고 검증할 수 있는냐이다. 기원전 16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신화적 사건들의 연대를 직접 절대 연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왜냐면 이 연대기에는 수많은 그리스 신들과 전설적인 영웅들이 자주 특정 사건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리스 역사 전통에서 인물들의 족보와 상대 연대 등에는 참고할 수 있지만, 적어도 후기 청동기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적 사료로서는 부적합한 점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그리스 고대사 전문가들도 이 자료의 직접 인용은 지양하는 편이다. ‘히소스’라는 명칭은 서기 100년경 기록된 요세푸스의 마네토 인용 이전에는 그 어느 그리스 역사 기록에도 등장하지 않는다. 이는 히소스가 구약성서에 등장하지 않은 것과 일맥상통한다.

4. 맺음말

1) 입-출애굽 전승이란 특정 민족 집단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집트로 이주해 가서 정착해 체류하다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 현지인들에 의해 추방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후대에 형성된 이야기를 의미한다. 그리스적 입-출애굽 전승이 둘 사이의 국제적 교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면 그 역사적 배경은 기원전 1600년대 이후 미케네 시대

49) “후기 고대(대략 기원후 3-6세기) 이래 작가들은 이집트 제 18왕조가 증오의 대상이었던 히소스를 쫓아냈다는 이집트 기록과 이스라엘인이 이집트에 억류되었다 탈출했다는 성서의 전승, 그리고 다나오스가 아르고스에 도착했다는 그리스 전설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보았다.” 마틴 버널, 『블랙 아테나』 제 1권, 오홍식 역, (서울: 소나무, 2006), 55.

의 이집트와의 국제 무역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아르고스 출신의 이오의 입애굽을 미케네 시대적 상황으로 해석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시도는 대부분 이집트에서 그 역사성이 확인된 기원전 16세기의 힉소스 추방에 기초해 있다는 점이다. 힉소스와 미케네 그리스인들과는 아무런 인종적 연관성은 없다. 힉소스 추방은 가나안을 고향으로 하는 고대 이스라엘 및 주변 집단들의 입-출애굽 전승의 원형이지, 바다 건너 그리스 본토까지 지리적으로 확장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2) 그리스의 입-출애굽 전승의 역사적 실마리는 기원전 13-12세기의 바다 민족의 이집트 진입과 탈출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당시 발칸 반도에서 소아시아를 거쳐 레반트에 이르는 내륙과 섬 지역 거주민들은 가뭄으로 인한 기근과 지진, 그리고 식량 부족에 따른 도시 국가들의 붕괴와 전쟁 등을 피해 살길을 찾아 동 지중해 연안을 유랑하다가 그나마 안정적인 농업 국가인 이집트를 최종 목표로 삼았다. 적어도 입애굽 전승 면에서는 고대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이나 요셉의 이집트 이주보다는 그리스 출신의 바다 민족들의 이주가 이집트 역사 기록에서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신빙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바다 민족의 이동이 그리스적 입-출애굽 전승의 기원이 될 수 있는 타당성은 첫째, 바다 민족의 지리적 고향이나 선박을 이용한 해양 문명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그들을 넓은 의미로 그리스 사람들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바다 민족이 이집트로 진입한 사건은 이집트 역사 기록 속에서 서로 다른 십여 개 집단으로 분류될 만큼 비교적 자세하게 등장하며, 심지어 신전 부조를 통해 특정 바다 민족들의 구체적인 생김새까지 확인된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이집트 진출과 정착에 실패한 바다 민족의 여러 집단들이 동 지중해의 여러 섬과 연안 지역의 에포넴적 기원이 되었다⁵⁰⁾. 이쉽게도

50) 이집트 기록에서 확인된 여러 집단들의 명칭과 그들이 정착한 지역으로 알려진 에포넴적 지명은 다음과

동 지중해 연안으로 퍼져나갔던 바다 민족 디아스포라는 그 후 500년 이상 지속된 암흑기를 지나면서 그리스인들의 역사적 기억 속에서 사라져 버렸다. 따라서 최초의 그리스 기록물로 알려진 기원전 8세기의 호메로스나 헤시오드가 자신들의 작품 속에서 이 전승을 제대로 인용하거나 활용하지 못했다.

3) 역사 기록을 통해 입증될 수 있는 본격적인 그리스인들의 이집트 정착은 바다 민족들의 입애굽보다 6세기 쯤 후인 기원전 7세기 나우크라티스 무역항의 설립에서 비롯되었다. 둘 사이의 국제 무역이 활발해졌고 어떤 형태로든 그들의 정신적 고향을 이집트 문명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생겨났을 것이다. 기원전 525년부터 이집트가 페르시아 제국의 직접적인 통치 하에 들어 왔을 때 비교적 안정적인 국제 정세를 이용해서 밀레토스의 헤카타이오스, 솔론, 헤로도토스 등 직접 이집트를 방문한 후 이집트 문화를 그리스인들에 구전이나 기록의 형태로 소개하는 본격적인 이집트 열풍이 불었다. 이미 전개된 지중해 연안의 수많은 그리스인들의 무역 거점 도시들의 개척과 함께 신화적 영웅들의 모험이나 방랑 이야기들이 형성되고 전해지기 시작했다. 페니키아 출신 유로파의 크레타 정착과 카드모스의 테베 정착, 그리고 이집트 출신 다나오스의 아르고스 정착 모티프가 생성되고 퍼져나간 것도 이 시기로 추정된다. 특별히 페니키아가 언급되는 이유는 이집트와 가장 이른 시기부터 백향목 수출을 주도했던 지역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리스 사람들이 이집트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소아시아와 페니키아를 반드시 거치게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리스 신화를 분석해보면 그 내용 면에서 이집트적인 것 보다는 히타이트-페니키아-시리아-메소포타미아적인 영향력이 더 많이 나타난다.⁵¹⁾

같다: 루카(리키아), 쉐르덴(사르데니아, 또는 리디아의 사르도니아), 에크와쉬(아카이아), 페르세트(블레셋).
 51) 그리스 신화에 대한 메소포타미아의 영향에 관한 연구들: Walter Burkert, *The Orientalizing Revolution: Near Eastern Influence on Greek Culture in the Early Archaic Age*. tr. by Margaret E. Pinder.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2); *Babylon, Memphis, Persepolis: Eastern Contexts of Greek Cultur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04); Martin L. West, *The East Face of Helicon: West Asiatic Elements in Greek Poetry and*



4) 그리스에 대한 이집트나 가나안의 문화적 영향력이나 상호 연관성을 강조하려는 특정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설득력이 매우 약하다. 첫째, 이들은 그리스 신화의 역사적 배경을 특정 시대로 설정하기 위해 다양한 가능성이 나올 수 있는 연대 문제에 너무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그리스 출신들로 이집트로 들어갔다 다시 나와 동 지중해 지역에 정착했던 바다 민족을 거의 다루지 않았다. 셋째, 헬레니즘 시대에 형성된 이집트가 세계 문명의 지리적 고향이라는 이집트 중심 사관과 반유대적 분위기에서 형성된 히소스 혐오 사상을 혼동하거나 인위적으로 엮었다. 이를 위해 페니키아를 떠난 그리스에 정착하는 다나오스나 카드모스 신화의 역사성을 기원전 16세기에 발생했던 이집트로부터의 히소스 추방으로 무리하게 연결시키는 오류를 범했다.⁵²⁾

5) 기원전 300년경 헬레니즘의 센터로서 알렉산드리아 역사학파는 세계 모든 문명은 이집트에서 비롯되었다는 이집트 기원설을 발전시켰다. 헤카타이오스는 이집트 역사가들의 영향을 받아 오랜 역사를 지닌 이집트가 세계 모든 문명의 뿌리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했다.⁵³⁾ 암흑기를 거치면서 그리스 여러 도시들의 창건 신화에 고대 영웅들의 해외 모험과 방랑 모티프가 많이 차용되었다. 아마도 헤카타이오스는 이러한 에포닉 자료들을 근거로 그리스인들의 해외 식민지 개척 전통을 이집트에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에 의하면 이집트는 유대와 그리스 뿐만 아니라, 메소포타미아(바빌론), 그리고 멀리 흑해 연안(콜키

Myth. (Oxford: Clarendon Press, 1997).

52) 1966년 이후 히소스의 중심지 아바리스 발굴 결과 그들이 가나안과 물질문화를 공유한다는 결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960년대 이전의 가설에 매달려 히소스 중 일부가 그리스와 유사한 인도-유럽어족일 것이라는 잘못된 전제에 사로잡혔다. Martin Bernal, *Black Athena II*, 320-360; 마틴 버널, 오홍식 옮김, 『블랙 아테나』 제 2권, 463-519.

53) "They developed a theory according to which Egypt had sent out colonies to Greece, to Mesopotamia, to Palestine, and to the Black Sea, and they interpreted in this sense the myths and historical memories of other nations which connected them with Egypt." Werner Jaeger, *Greek and Jews: The First Greek Records of Jewish Religion and Civilization*, *Journal of Religion* 18(1938): 137.



스)까지 식민지를 건설했다는 것이다.⁵⁴⁾ 물론 이러한 헤카타이오스의 주장에는 역사적 근거가 없으며, 단지 이집트가 페르시아 제국에 편입되었던 시대에 지리적 경계를 초월하는 범 민족적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헬레니즘 시대의 그리스적 입-출애굽 전승은 이집트가 중심이라는 이집트의 세계 문명 기원설에 기초한 전승으로 정착됐다.

5. 참고문헌

김성, “첫 번째 역사적 출애굽: 출애굽의 연대추정과 히소스 추방”, 『구약논단』 제1집(1995), 27-55.

_____, “외국 땅의 통치자들: 히소스에 관한 역사 전승 연구”, 『서양고대사연구』 제16집(2005), 1-24.

오홍식, “아르고스 왕 다나오스와 그 후손들”, 『서양고대사연구』 제12집(2003), 23-39.

_____, “스파르타 왕가의 히소스적 기원”, 『서양고대사연구』 제16집(2005), 45-68.

장석정, “일곱째 재앙 경고(출 9:13-21) 재고”, 『구약논단』 40집(2011년 6월), 12-32.

Astour, Michael, *Hellenosemitica: An Ethnic and Cultural Study in West Semitic Impact on Mycenaean Greece*. (Leiden: Brill, 1965).

Bar-Kochva, Bezalel, Pseudo-Hecataeus, “*On the Jews*”: *Ligitimizing the Jewish Diaspor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6).

Bard, Jean, “Les Hyksos et la Légende d’Io: Recherches sur la Préhistoire Pré-myénienne,” *Syria* 29(1952), 1-43.

54) 디오도루스 시쿨루스 128.

- Bernal, Martin, *Black Athena: The Afroasiatic Roots of Classical Civilization, Vol. I: The Fabrication of Ancient Greece 1785-1985* (New Brunswick: Rutgers University Press, 1987).
- _____, *Black Athena, Vol. II: The Archaeological and Documentary Evidence* (New Brunswick: Rutgers University Press, 1991).
- _____, *Black Athena Vol. III: The Linguistic Evidence*, (New Brunswick: Rutgers University Press, 2006).
- Bertholot, Katell, “Hecataeus of Abdera and Jewish ‘Misanthropy’ .” *Bulletin du Centre de Recherche Français Jérusalem* 19(2008), 1-13.
- Bietak, Manfred, *Avaris, The Capital of the Hyksos: New Excavation Results* (London: British Museum Press, 1996).
- Boardman, John, *The Greeks Overseas: Their Early Colonies and Trade* (London: Thames & Hudson, 1980).
- Capponi, Livia, “Hecataeus of Abdera and a New Conjecture in Josephus, Contra Apionem I.189,” *Histos* 5(2011), 247-265.
- Dothan, Trude, *The Philistines and Their Material Culture* (Jerusalem: Israel Exploration Society, 1982).
- Dothan, Trude & Moshe Dothan, *People of the Sea: The Search for the Philistines* (New York: Macmillan, 1992).
- Feldman, Louis H, “Josephus’ Portrait of Moses.” *Jewish Quarterly Review* 82(1992), 285-328.
- _____, “Parallel Lives of Two Lawgivers: Josephus’ Moses and Plutarch’ s Lycurgus.” In: Jonathan Edmondson, Steve Mason, and James Rives eds., *Flavius Josephus and Flavian Rom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209-243.
- Gager, John G., *Moses in Greco-Roman Paganism*. (Nashville: Abingdon

- Press, 2005).
- Galvin, Garrett, *Egypt as a Palce of Refuge*. (T bingen: Mohr Siebeck, 2011).
- Gordon, Cyrus, “Homer and Bible: The Origin and Character of Mediterranean Literature,” *Hebrew Union College Annual* 26(1955), 43-108.
- _____, *Before the Bible: The Common Background of Greek and Hebrew Civilization* (London: Collins, 1962).
- Gruen, Erich S., *Heritage and Hellenism: Reinvention of Jewish Traditio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8).
- Hicks, Ruth I., “Egyptian Elements in Greek Mythology,” *Transactions and Proceedings of the American Philological Association* 93(1962), 90-108.
- Jones, Christopher P., *Kinship Diplomacy in the Ancient World*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9).
- MacKinnon, J.K., “The Reason for the Danaids’ Flight.” *Classical Quarterly* 28(1978), 74-81.
- M ller, Astrid, *Naucratis: Trade in Archaic Gree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 Oren, Eliezer D. ed., *The Sea Peoples and Their World: A Reassessment*. (Philadelphia: University Museum, 2000).
- Sanders, N.K., *The Sea Peoples: Warriors of the Ancient Mediterranean* (London: Thames & Hudson, 1985).
- Stubbings, Frank H., “Danaus and the Hyksos,” *Cambridge Ancient History* II/1(1973), 635-638.
- Van Seters, John, *The Hyksos: A New Investigati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66).

검색어

그리스의 출애굽

바다 민족

이오 신화

히소스

헤카타이오스

The Greek Exodus Traditions and Their Historical Settings

Seong Kim, Ph.D.

Professor, Department of Liberal Arts

Hyups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figure out “the eisodos-exodus motifs” from the available Greek myths and to examine their historical settings. Egypt, with abundant food yielded by a large scaled agriculture due to the Nile, has attracted many poor peoples of its neighbour countries. Thus many ethnic groups entered into and after a while came out of it. This kind of movements, as like as Joseph’s entry and Moses’ exit, creates a general eisodo-exodus tradition. The entry into Egypt by of Io, the princess from Argos, and the escape of her descendants are appropriate into this category.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Greek eisodo-exodus traditions can

www.kci.go.kr 그리스 출애굽 전승과 역사적 배경 | 김성 315

be summarized to the contemporary circumstances of the three phases as follows. Mycenaean trade relation with Egypt in the 16th Century B.C.E., migrations of the Sea peoples in the 13th-12th Centuries B.C.E., and the foundation of Naukratis in the Delta as a Greek emporium in the 7th Century B.C.E. Among these the case of the Sea Peoples has been the most reasonable prototype for the Greek eiso-exodus traditions. Hecataois of Abdera asserted that the emigrants from Egypt founded towns in Judah, Greece, Babylonia, and Colchis et. cet. This tendency was formulated by the 3rd Century Alexandrian historiography in terms of national propaganda which emphasizes that main world civilizations were originated from Egypt.

Key words

Greek Exodus

Sea Peoples

Myth of Io

Hyksos

Hecataeus

- 투고일: 2013년 10월 01일
- 심사일: 2013년 10월 20일
- 게재 확정일: 2013년 11월 07일

www.kci.go.kr

그리스의 출애굽 전승과 역사적 배경 | 김성 317